

각국 불교가 지닌 특수성을 조명

한국불교연구 <불교연구> 40집,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세계 각국 불교의 발전과정을 짚고 그 속에서 공통적인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한 논문집이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리영자)은 최근 발간한 <불교연구> 40집에서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한 특집논문을 수록했다.

논문집에서는 △조준호 한국외대 연구원이 '인도불교'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남방불교' △정성준 동국대 강사가 '티벳불교'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불교'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각각 발표했다.

롭게 넘나드는 초국가적 종교로 발전한데에는 왕권으로부터 간섭과 통제가 배제된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불교에서는 정교분리가 2600년 전 성취됐다. 또 현대의 차별금지와 생명존중 사상 등이 이미 그 안에 있다"고 말했다.

수계전통으로 독자성 유지

황순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남방 불교 분야에서는 수계전통을 통해 각국 불교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일성을 띠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얀마 담파체따왕이 1400년대 불교교단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리랑카에서 수계전통을 도입했고, 남방 테라와다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미얀마의 경우 깔야니시마라는 수계전통으로 단일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태국의 경우 깔야니시마가 철저한 계행을 강조하는 탐마우의 성립을 이끌었다"며 "동남아의 경우 문, 산, 아라칸 등 다양한 민족들이 수계전통을 통해 불교의 단일성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김상영 교수 황순일 교수 조준호 연구원

기존 토속신앙과 융합하며 발전

정성준 동국대 박사는 티벳불교는 토속 종교인 빈교의 제식과 독특한 정치활동인 '전생활발'과 불교가 융합하며 각종 제식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티벳불교는 빈교나 활불제도 등을 통해 종파불교이면서도 간결하고 실용적인 불교의 가르침이 특징"이라며 "티벳불교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티벳불교가 지역적 종교가 아니며 인도의 나란대 대학과 같이 당대 불교와 민족신앙을 모두 아우르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연구, '회통'에 치우치지 말아야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한국불교는 회통불교이면서도 종파불교의 전통과 특

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불교는 중국 및 일본불교와 달리 종파성이 없으며, 있어도 열리는 학계 주장과 달리 고려불교사를 보면 전형적인 종파불교 시대를 거쳤다"며 "회통이면에 각 종파가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 사상을 발전시켜온 부분을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조선시대 '무종파'와 '의승군 참전' 등 한국불교 특수성은 권력에 의해 강제적 단절을 경험했던 관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며 "회통불교를 논하고, 한국불교를 논하는 것은 이전시대 한국불교가 지닌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조선왕조에서 자행된 불교전통의 단절을 미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보현행원 신앙화로 비로자나불 조성"

곽승훈 목원대 교수, 신라사학회 학술발표회서 주장

아미타불을 모시는 정토신앙이 널리 퍼진 신라시대가 9세기에 들어서면 화엄경의 교주인 비로자나불이 대거 조성된다. 비로자나불이 화엄종 사찰을 넘어 법상종과 선종 사찰에 까지 널리 봉안된 이유는 무엇일까?

신라사학회(학회장 김창겸)가 4월 19일 서강대에서 개최한 제135회 학술발표회에서는 신라 하대 비로자나불의 대량 조성성에 대한 연구가 공개됐다.

곽승훈 목원대 교수는 경덕왕 당시 화엄사에서 조성된 백지묵서 화엄경을 통해 "보현행원을 닮아 속히 성불하리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비로자나불 조성이 보현행원사상의 유행의 결과임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신라 중대 말 보현행원의 유행은 염불과 보시 공덕을 강조한 타력신앙



경덕왕 대 봉안된 불국사 비로자나불상.

에서 벗어나 자력신앙이 확산되는 증거"라며 "또 전쟁과 혼란으로 민생이 파멸했던 사회가 안정화 되고 발전하며 현세적인 성격을 띠는 현세신앙으로서 현세성불 사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사회문화연구 5월 16일 콜로키움 개최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윤영해)은 5월 16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 4층 글로벌에이스홀에서 '초기 불교의 근본사상과 대승불교로의 흐름'을 주제로 동국불교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날 초기불전연구원 각목 스님이 '초기 불교의 근본사상과 대승불교로의 흐름'

을 주제로 기초발제를 한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황경환 초기불전연구소 연구원, 임승택 경북대 교수, 안양규 동국대 교수, 김영진 동국대 교수, 석길암 금강대 HK 연구교수, 김준호 부산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노덕현 기자

"자아 성찰 표현한 추사 그림은 불교미학의 산물"

백원기 동방대 교수, 불교문예연구소 세미나서 주장

"추사의 세한도에는 자신을 내려놓은 비움과 삶에 대한 성찰을 의미하는 선적 사유가 내밀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는 격식을 떠나 궁극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화와 다르지 않다."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가 4월 23일 개최한 제3회 학술대회 '우리 그림과 불교미학의 만남'에서 백원기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추사의 세한도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추사 김정희·단원 김홍도 등 조선시대 서화가들의 작품 속에서 불교적 감각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세한도는 1844년 추사가 제주도 유배생활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대해준 제자 우선 이상적의 의리를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해 그린 그림으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절개를 담은 명작으로 꼽힌다.

백 교수는 "세한도에는 국한의 고독과 외로운 내면이 유한한 공간에서 무한한 서정을 담겨 있다"며 "나무를 그린 간결하고

투박한 선의 질고 열은 농담과 그 변주는 유배생활의 무한한 심경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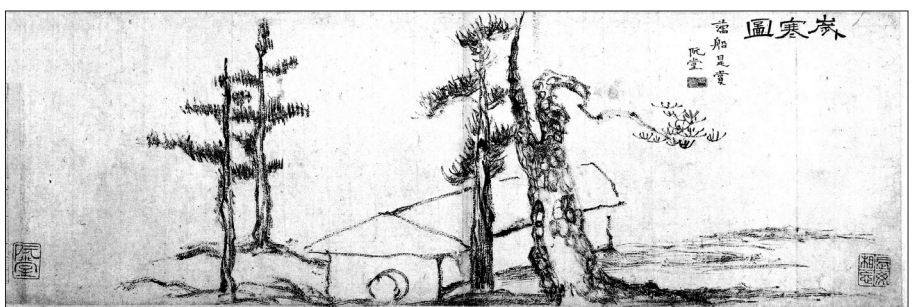
백 교수는 또 "세한도에는 세속의 명리를 멀리하려는 정신이 뚜렷히 드러난다. 비움에 대한 깊은 사색의 모습도 담겨 있다"며 "아주 적은 언어만으로 철저한 고독과 자아 찾기를 표현한 세한도는 모든 형식 격식을 벗어나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화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고 말했다.

명리 멀리하는 정신 뚜렷

비움과 내려 놓음 담아

유불선 일치사상, 선화의 일종

백 교수는 세한도의 여백이 추사가 유배생활 얻은 불교적 소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세한도의 여백은 추사 자신의 비움과 내려놓음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자아의 성찰과 깨달음에서 오는 유불선 일치, 서화일치, 불이선란, 화선일치 등을 기조로 모든 것을 하나로 포괄하고 회통시키는 추사의 원용



추사의 세한도. 백원기 교수는 세한도에서 꾸밈 없는 여백과 선은 선화에서 보여지는 형식과 격식을 벗어난 깨달음의 추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의 사유가 자리한다"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또 "추사의 그림의 미학은 무한한 공간을 고졸하고도 단순한 하나의 그림으로 응축시키는 집중과 통합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독을 성찰로, 혼란을 상생과 불이사상으로 승화시킨 감동의 핵심"이라며 "꾸밈이 없고 담박한 선적 사상이 시·서·화에 녹아 있다는 점은 그의 서화세계가 선과 예술이 다르지 않은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조강연 '한국불교미학의 특징과 그 미의식'을 발표한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미학은 불교의식의 소산, 불교의식은 불교적 감정의 발현이기에

불교적 감정을 탐구하는 데서 불교미학 연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오늘날 불교미학 연구가 성행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은 양식주의가 중심"이라며 "불교적 감정에 대한 토대가 있어야 불교미학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세미나에는 이외에도 지미령 박사가 '고려 수월관음도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를, 조정욱 미술평론가가 '단원 김홍도의 화풍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를, 진철문 동국대 교수가 '장욱진의 화풍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를 각각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ICOMOS,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권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4월 25일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남한산성을 '등재 권고'로 평가해 유네스코(UNESCO)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남한산성에는 수어장대와 송렬전, 청량당, 현철사, 침괘정, 연무관, 망월사지, 개원사지, 지수당, 장경사 같은 기념물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특히 축성과정에서 의승군이 대거 동원되고 이후 의승군 주둔을 위한 9개 사찰이 창건되는 등 불교와도

관계가 깊은 곳이다. 현재 불교계는 광주 장경사 등 남한산성내 불교문화유적 복원 불사를 진행 중에 있다.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산성은 △동아시아 도시계획과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증거 △지형을 이용한 축성술과 방어전술의 시대별 층위가 결집된 초대형 포곡식(包谷式) 산성인 점이 인정받았다.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는 '제3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보고와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제2회 다솔사 선차 학술발표회

사천 다솔사(주지 동초)는 5월 10일 다솔사 경내에서 다솔사 선차 축제 개최식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선차 정령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의정 스님의 '청규로 살펴본 차의 세계' 정순일 교수의 '다선 일미'가 발표되며 여연 스님의 '오늘날 선

차의 경향과 방향' 총평 등도 진행된다.

다솔사 주지 동초 스님은 "오늘날 선차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지향점은 어디인지를 찾기 위해 이번 선차 축제를 열게 됐다"며 "선차만의 아담법석으로 일상의 차 생활에서 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 권으로 담아낸 성전!

장충천 편역 | 신국판 양장 | 926쪽 | 33,000원

붓다의 본생과 탄생, 성장과 출가, 수행과 전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읽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붓다의 감동적인 생애가 펼쳐진다.

방대한 아함의 불음佛音을 한 권으로 쉽게 풀어 엮은 책으로, 붓다의 일상적인 삶과 수행생활, 45년 간 펼친 방대한 가르침의 에센스가 오롯이 담겨 있다.

목숨을 건 수행과 통찰,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비심, 제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상한 가르침, 한 사람에게가라도 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쉬임없는 전법활동……

아들아, 불교란 이런 거란다!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붓다의 가르침,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한 어머니의 삶과 불교 이야기!

홀로, 게다가 병든 몸을 이끌고 이국 땅(태국과 프랑스)에서 아들을 키워낸 한 어머니의 평탄치 않은 삶의 여정과 그 속에서 만난 불교 이야기!

그녀는 어떻게 고해의 바다를 헤쳐 나올 수 있었는가? 이 책은 붓다의 가르침에서 삶의 길을 찾은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기는 정신적 유산으로, 그 간절함과 진정성이 가슴에 와닿는다.

최혜자 지음 | 신국판 | 388쪽 |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